KIPA NEWS

'캠퍼스 발명왕'에 도전하세요!

대학(원)생이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명품으로 제작해보고, 이러한 제품이 특허로 보호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12 대학 창의발명대회(이하 대회)'가 지난 4월 5일부터 시작되었다.

특허청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이 대회는, 현재 '발명공모', '발명연구', '발명특허' 등 3개의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 중에 있다. 먼저 발명공모부문은 산학협동형 발명 프로그램으로서, 참여기업이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나 기술적 과제를 제시하면 대학생이 이에 대한 발명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중앙방수기업주식회사, ㈜한경희생활과학, LS산전이 협찬기업으로 참여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공모과제로 제시했다. 협찬기업에서는 공모과제에 대한 참신한 해결방안이 제시될 경우 이를 제품생산에 활용할 예정이다.

발명연구부문은 제출된 미완성 아이디어를 발명품으로 완성해 가는 과정과 결과를, 발명특허부문은 졸업작품이나 논문 등으로 이미 완성된 발명을 특허출원서 형태로 작성하고 시작품으로 구현하여 그 우수성을 겨루고 있다.

심사는 아이디어의 구체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이 서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종심사는 발표심사로 진행되어 발명의 완성도, 사업화가능성, 발표력 등을 평가하고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심사의 공정성, 권리화 ·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회추천교수, 변리사, 벤처기업가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시상식은 올 12월 6일에 열릴 예정이며 우수발명에 대해서는 대상(국무총리상) 1팀 등 총 38팀을 선발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발명의 수준을 높이고 대학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도교수상과 단체부문의 발명동아리상도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대상 수상작에 대해서는 국제발명전 출품 참여를 지원하고, 우수상 이상은 필요한 경우 국내출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청 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우수발명품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자격은 대학(원)생이면 전공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므로 발명연구부문 참가 희망자는 5월 22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발명특허부문과 발명공모부문의 신청접수는 8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www.inventkorea.or.kr) 또는 대회 사무국인 우리회(발명진흥팀, 02-3459-2794)로 문의하면 된다.

제네바국제발명전에서 금상 7건 등 총 16건 수상

우리회는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현지시각)까지 스위스 제네바 팔렉스포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40회 제네바 국제발명·신기술 및 신제품전시회(이하 제네바국제발명전)에서 금상 7건, 은상 3건, 특별상 6건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네바국제발명전 금상은 (주)한백시스템(원유석)의 「시각장애인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의 안전대기장치」, (주)에이치엔씨(임재영)의 「의류 관리기」, (주)푸드에너지(이관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 (주)엠에프테크(오동진)의 「전기집진장치 및 전기집진 방법」, POSTEC(유희천 교수)의 「PC기반 시야 자가진단 시선 고정 방법」, 코모코 엔지니어링(최명수)의 「컵 세척기」, 미림사(임성조)의 「이동 가능한 지압체를 갖는 신발용 바닥재」 등이다.

또 은상에는 터치슈즈닷컴(황종오)의 「신발끈의 결속장치」, 네오비(이팔형)의 「칫솔」, 원라인썬(김명숙)의 「구증구포 인삼 추출물과 천연 한방 추출물을 함유하는 탈모방지용 화장료 조성물」이 수상했다.

특히, (주)한백시스템(원유석)은 대만발명가협회 특별상, (주)에이치엔씨(임재영)는 타이페이시 특별상, (주)푸드에너지(이관희)는 제네바시 특별상 및 말레이시아 과학자협회 특별상, POSTECH(유희천 교수)은 러시아 교육과학부 특별상, 미림사(임성조)는 이란발명가협회 특별상을 수상하여 금상과 특별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제네바국제발명전은 세계적 권위의 국제발명전으로,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세계 46개국에서 총 1,000여 점의 발명품이 출품됐으며 올해 40회째를 맞은 세계 최대의 발명전이다.

우리회 등 5개 기관, 국가 지식재산 인재양성 위해 손잡아

우리회는 지난 4월 5일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지식재산 교육의 공급 및 수요를 담당하는 4개 기관과 국가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는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국내 대표적 지식재산 교육 공급기관인 우리회를 비롯,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산업계 수요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개발인력교육원, 벤처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회 등 5개 기관은, 지식재산 인재양성 종합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지식재산 교육수요 발굴 및 활용, 국내외 지식재산 인재양성 동향조사 및 정책추진 방안 연구, 산업계 및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라는 공동인식으로 마련된 것"이며 "지식재산 교육의 수요 및 공급기관 간 긴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